

코로나19와 함께 시작한 내 인생 첫 중학교 1학년

김서연

올해 초 여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돌아왔을 때 공항에 기자들이 몰려와있었다. 나는 연예인이 온줄 알고 신기해서 두리번거렸는데 기대했던 연예인은 보이지 않았다. 집에 와서 뉴스를 보니 중국에서 시작된 감염병의 영향으로 공항방역에 대해 취재하기 위해 공항에 기자들이 몰려왔던 것이었다. 이때만 해도 조금만 있으면 잠잠해질 거라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이때까지만 해도 코로나 19가 이렇게 오래 지속될지는 상상도 못했다.

대략 한 달 뒤 나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다. 올해 나는 드디어 초딩을 졸업하고 중딩이 되는 아주 중요한 해이다. 코로나 19로 졸업식도 교실에서 영상으로 진행했었고 새롭게 맞춘 교복을 옷장에 고이 모셔두기만하고 학교 갈 날을 기다렸다. '교복을 입고 중학교에 가는 기분은 어떨까?' 설레며 기다렸는데 입학식도 개학도 연기되었고, '길어진 개학연기에 과연 언제 학교에 갈 수 있을까? 저 교복을 과연 입을 수 있을까?' 생각하며 온라인 학습으로 중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결국 동복은 입지도 하복을 맞추라는 안내를 받는 웃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지만 6월이 되어서 드디어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야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하니 외출을 하지 않고 집콕하는 시간이 많아져 핸드폰 사용시간이 늘어나게 되었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핸드폰과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함을 깨닫고 평소 읽고 싶었던 책도 찾아서 보고 저녁마다 아빠와 홈트레이닝도 시작하였다. 아쉽게도 나는 살이 빠지진 않았지만, 아빠는 무려 5kg나 빼는

쾌거를 이루었다. 코로나19 전에는 퇴근이 늦는 날이 종종 있었던 부모님도 일찍 집에 오고 가족 모두가 집에 오손도손 모여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보드게임 같은 가족 게임을 하는 시간도 늘었다. 그러다가도 서로 부딪히거나 긴장이 높아지면 음악으로 감성 충전을 했다. 나는 피아노, 엄마와 동생은 오카리나 아빠는 트라이앵글이라도 들고 나와 합주도 하는 가족끼리 집안 버스킹도 하게 되었다. 코로나시대에 하고 싶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지만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평소 가족과 있었던 마음의 사회적 거리는 좁아지고 건강을 위한 사회적 거리를 잘 지킬 수 있었다.

그래도 인생에 한번밖에 없는 중학교 1학년의 새로운 친구들 얼굴이 너무 궁금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새로 배정된 같은반 친구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었지만 SNS로 만나거나 일주일에 한번 학교에 가서 조금은 어색하게 서로를 탐색하던 시간이 소중했다. 한번은 온라인 실시간 수업하다가 나도 모르게 실수로 하품을 해서 벌칙으로 문제를 풀었었던 일도 있었다. 열심히 수업하는 선생님께는 죄송했지만, 역시 수업은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친구와 만나서 하는 수업이 역시 좋은 것 같다. 새로운 친구들과 자주 만날 수는 없었지만 서로 친해지고 싶다는 마음 하나만큼은 다들 같은 마음이었다. 개학이 미뤄진다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걱정되지는 않았다. 우리는 사회적 거리를 지키며 마음은 가깝게 다가가는 방법을 매일매일 배우고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전세계가 코로나19의 2차 유행으로 엄청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알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말 많은 분들의 수고로 코로나19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서 관리되고 있음을 매일 뉴스를 보며 느낀다. 우리가 다른 해보다 조금 늦게라도 입학식을 하고 학교를 갈수 있게 된 것은 지난 뜨거웠던 여름에도 방호복 입고 환자를 위해 애쓰셨던 의료진

과 확진자의 역학조사를 하고 동선마다 소독하고 각 공공시설마다 매일매일 빈틈없이 일상소독을 꼼꼼히 해주신 보이지 않은 많은 분들의 수고의 열매라는 것을 다시한번 느끼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답답하더라도 외출할 때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친구도 만나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지만 참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준 모든 국민들의 자발적인 성숙한 노력 덕분이다.

앞으로도 코로나 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이 또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K 방역처럼 팬데믹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노력이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코로나19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 힘과 마음을 모은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웠다. 나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코로나19가 끝날 때 까지 나의 역할을 다하리라고 다시 한번 다짐해본다.